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올바른 인식

국토방위와 경제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생존을 위해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식량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자력으로 식량안보를 지키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때다. 쌀이 남는다 하여 우리가 식량문제에서 빚겨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인구학자 맬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설파했다. 맬더스의 인구론은 지난 2000년 동안 이상주의자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21세기 식량위기와 맞닿으면서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물 부족 등이 심화되면서 식량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의 식량위기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최근의 위기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위기나 환경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식량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자기 나라의 식량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식량주권' 확보가 중요하다. 땅만이 아니고 정신이나 식량 정체성을 잃어도 식민지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식량안보는 단순한 수급조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 곡물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곡물회사들이 자국의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식량수출을 금지하거나 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해외 수입선의 확보가 쉽지 않다. "돈으로 언제나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한

로버트지글러의 말처럼, 살 수 없어서 (Impossible to purchase), 살 수 없는 (Impossible to live) 시대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식량생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식량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반도체 등 타 분야 산업만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반세기 국가연구개발의 첫 번째 10대 성과로 녹색혁명의 핵심인 “통일벼”를 선정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전망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라 토지의 사막화,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의 환경재난이 겹치면서 식량생산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함께 인구증가, 소득증가와 같은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향후 수십 년간 심각한 식량부족과 농산물 가격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생산이 늘어나겠지만 기후변화가 전 농업 분야에 끼칠 영향은 부정적이어서 전 지구적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국제 곡물가격은 세계 곡물재고가 바다를 쳤던 200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곡물가격은 2005/06 곡물년도 평균가격에 비해 밀 2.3배, 옥수수 3.2배, 콩 2.6배 등 최고 2~3배까지 올라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10~2019 농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국제 곡물가격이 1997~2006년 대비 15%에서 최고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상승 요인으로는 국제원유가의 인상과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 국가들의 인구 및 소득증가가 핵심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 현황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을 자급하고 있어 그나마 식량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도는 극히 저조해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식량문제는 국방처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점점 낮아져 2009년 현재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자급이 가능한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 품목별로는 밀 0.5%, 옥수수 1.0%, 콩(두류) 8.4%, 보리쌀 41.1% 등으로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외국에서 도입하는 곡물로 식량의 4분의 3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서 곡물수입에 의한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 :



[수입상대국별 식량수입량(ton)×수출국과 수입국과의 수송거리(km)]의 증가는 국가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쌀 국수, 과자, 막걸리 등 쌀 가공식품 개발과 자급이 안 되는 밀,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 쌀 이외의 곡물의 국내 생산증대를 통한 가용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 방안

식량자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고 식량주권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자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중장기적 대비책이 시급하다.

첫째, 식량자급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의 60%를 논이 차지하고 있다. 같은 논에 '겨울에는 맥류 등 겨울 작물을, 여름에는 쌀을 생산하는 방식'은 아직도 매우 유용한 작부체계로 농

촌진흥청은 이러한 작부체계를 확대하여 쌀 이외 타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숙기가 짧고 병충해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작물의 품종개발과 함께 생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가공기술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쌀 생산조정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를 위해 콩, 사료용 옥수수 중심의 논 재배기술 및 작부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밀과 보리의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재배안정성이 높은 품종개발과 함께 용도에 맞는 밀(빵, 면, 과자)과 보리품종(맥주제조, 엿기름, 혼반)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밀은 현재 1%인 자급률을 2017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종자부터 생산·가공·판매까지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품질을 유지하면서 생산단지수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료용 작물을 개발하고 있다. 청보리를 필두로 밀, 호밀, 귀리, 트리티케일, 옥수수, 벼까지 다양한 작물의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올바른 인식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국산 조사료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으로 2012년까지 자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중이다.

둘째,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해가 갈수록 더욱 가깝고 긴밀해지는 국가간의 경제사회적 관계로 인해 세계 식량문제는 곧 아시아와 우리의 쌀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통일벼 개발로 일찍이 주곡인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기술수혜국에서 기술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뀌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농업·농촌개발의 모델이 되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우리의 농업 성공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구 온난화, 에너지 고갈, 수자원 부족으로 인해 예견되는 식량위기로부터 대처하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에서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더불어 올해부터 3년간 '아시아 국가의 쌀 자급을 향상'을 위한 특별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장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시발점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할 것이다.

셋째, 그밖에 식량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수입국 다양화 및 해외 식량기지 개발 등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곡물수입이 미국, 호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다국적기업인 곡물메이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비상시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식량 수입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곡물메이저와 같은 유통망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농지가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향후 곡물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식량기지 확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만, 해외식량기지 개발을 위해서는 농업개발의 특성상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지역과 작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방위와 경제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존을 위해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식량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자력으로 식량안보를 지키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때다. 쌀이 남는다 하여 우리가 식량문제에서 빚겨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지금도 75% 가량의 곡물을 수입해 오고 있다.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등 지원민족주의가 날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Y